

2020년 10월 15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코로나 재 확산 및 추가 부양책 지연으로 부진 무늬, “추가 부양책 대선 전 타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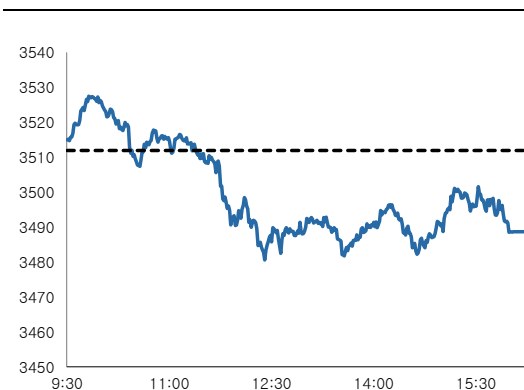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기술주 변동성 확대

미 증시는 대형 기술주가 투자이건 또는 목표주가 상향 조정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자 상승 출발. 그러나 일부 기업들의 실적 발표 후 매출 출회 및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경기 회복 지연 언급으로 상승 제한. 이런 가운데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증가와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매출 출회되며 결국 하락 전환. 특히 오전에 강세를 보이던 기술주 중심으로 매출 출회(다우 -0.58%, 나스닥 -0.80%, S&P500 -0.66%, 러셀 2000 -0.93%)

미 증시는 오전 강세와 오후 매출 출회로 나눌 수 있음. 장 초반 강세 요인은 일부 기술주에 대한 목표주가 상향 조정 등에 의한 결과. 애플(+0.07%)은 모건스탠리가 아이폰 12 시리즈에 대한 기대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한 때 1.6% 상승. 넷플릭스(-2.28%)도 골드만삭스와 코웨이 실적 개선을 이유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한 때 3.3% 급등. 여기에 테슬라(+3.28%)는 골드만삭스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중국 전기차 업체인 니오(+22.57%)는 JP 모건과 씨티가 투자이건을 상향 조정하자 급등. 이렇듯 장 초반 시장은 기술주 중심으로 호재성 재료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임.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도 기술주 강세 요인

그렇지만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미국 경제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1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 고용 시장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는 등 경기 회복 지연 우려를 표명. 여기에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두달 만에 7 일 평균 5 만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이 지속. 이는 지난주 대비 16% 증가와 9 일 연속 증가라는 점에서 겨울철 재 확산 우려를 부각. 그렇기 때문에 어느때 보다 추가 부양책이 필요한 상태인데 오후 들어 무늬 미 재무장관이 “대선 전에 부양책 타결은 어려울 것” 이라고 발표하자 매출이 출회되며 주식시장 하락 전환. 특이한 점은 과거에 부양책 지연 소식들은 항공 등 코로나 피해 업종의 하락을 부추겼다면 오늘은 기술주 중심으로 매출이 출회된 점. 이는 옵션 만기일(금)을 앞두고 일부 콜옵션 청산 등 수급적인 요인에 기반한 것으로 추정. 결국 시장 참여자들은 코로나 관련주가 과도하게 강세를 보였다고 평가하며 일부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판단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380.48	-0.94	홍콩항셍	24,667.09	+0.07
KOSDAQ	861.48	-1.20	영국	5,935.06	-0.58
DOW	28,514.00	-0.58	독일	13,028.06	+0.07
NASDAQ	11,768.73	-0.80	프랑스	4,941.66	-0.12
S&P 500	3,488.67	-0.66	스페인	6,916.60	+0.60
상하이종합	3,340.78	-0.56	그리스	632.81	-0.55
일본	23,626.73	+0.11	이탈리아	19,607.73	+0.2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 기술주 장 후반 하락 전환

중국 전기차 업체인 니오(+22.57%)는 JP모건이 전기차 판매 급증 기대가 높다며 투자의견 상향과 목표주가를 14달러에서 40달러로 상향 조정하자 급등했다. 테슬라(+3.28%)도 골드만삭스가 실적 기대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강세를 보였다. 골드만삭스(+0.20%)는 양호한 실적 발표로 모건 스탠리(+0.42%)와 더불어 강세를 보였다. 그렇지만 BOA(-5.33%)와 웰스파고(-6.02%)는 부진한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우려 표명으로 부진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차별화가 진행 되었다. 배드배스 앤 비온드(+8.13%)는 특정 비 핵심 자산 매각 소식에 힘입어 급등했다.

애플(+0.07%)은 목표주가 상향 조정으로 상승을 하기도 했으나 장 후반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 하기도 했다. 넷플릭스(-2.28%)도 장 초반 온라인 스트리밍 산업 강화 등을 이유로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이어져 한 때 3% 넘게 급등하기도 했으나 장 후반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했다. 아마존(-2.32%)은 프라임 데이에 대한 기대 속 강세를 보였으나 EU 반독점 규제 당국이 아마존에 대한 조사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 유나이티드 헬스(-2.89%)는 양호한 실적 발표 불구 전 분기 보다 개선 폭이 줄었다는 점과 향후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발표로 하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동락률	ETF 종류	동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48%	대형 가치주 ETF(IVE)	-0.50%
에너지섹터 ETF(OIH)	+1.55%	중형 가치주 ETF(IWS)	-0.18%
소매업체 ETF(XRT)	-0.83%	소형 가치주 ETF(IWN)	-0.69%
금융섹터 ETF(XLF)	-0.96%	대형 성장주 ETF(VUG)	-0.81%
기술섹터 ETF(XLK)	-0.53%	중형 성장주 ETF(IWP)	-0.74%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81%	소형 성장주 ETF(IWO)	-1.16%
인터넷업체 ETF(FDN)	-1.22%	배당주 ETF(DVY)	-0.15%
리츠업체 ETF(XLRE)	-1.15%	신흥국 고배당 ETF(DEM)	-0.53%
주택건설업체 ETF(XHB)	-0.12%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48%
바이오섹터 ETF(IBB)	-1.31%	미국 국채 ETF(IEF)	+0.03%
헬스케어 ETF(XLV)	-0.58%	하이일드 ETF(JNK)	-0.23%
곡물 ETF(DBA)	+0.54%	물가연동채 ETF(TIP)	0.00%
반도체 ETF(SMH)	-0.53%	Long/short ETF(BTAL)	-0.0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31.47	+0.31%	+1.16%	-8.53%
소재	414.92	+0.35%	+1.03%	-0.26%
산업재	682.35	+0.54%	+1.37%	+1.92%
경기소비재	1,269.19	-1.43%	+2.69%	+5.30%
필수소비재	680.44	-0.52%	+2.02%	+2.93%
헬스케어	1,253.94	-0.69%	+0.60%	+1.80%
금융	411.55	-1.07%	-0.41%	-0.49%
IT	2,146.00	-0.55%	+3.53%	+6.59%
커뮤니케이션	201.66	-1.18%	+3.33%	+1.34%
유틸리티	321.96	-0.15%	+1.57%	+6.31%
부동산	223.54	-1.16%	-1.11%	-2.5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소폭 하락 출발 후 개별 종목 장세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9% MSCI 신흥 지수 ETF 는 0.67% 하락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47.4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금융시장은 추가 부양책 지연과 코로나 재 확산, 미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졌다는 점은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으나 이는 전일 움직임에 대한 반작용으로 추정되기에 영향은 제한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미 주식시장의 특징은 코로나 재 확산 및 추가 부양책 지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피해 업종은 견고함을 보였던 반면 코로나 수혜 업종이 오히려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러 악재에 주식시장이 그동안 상승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매물 출회를 보였다고 볼 수 있어 한국 증시에서도 상승이 컸던 종목군 위주로 부담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의 변화 요인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종목 장세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실적 개선 기대가 높은 종목군 중 상승이 제한된 종목, 투자의견 상향 조정된 니오와 테슬라의 급등, 장 후반 재차 반등에 성공한 애플과 부품주 등의 영향으로 관련 종목군의 변화가 주목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물가지표 상승

9 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해 예상(mom +0.2%)를 상회했으며 전년 대비로도 0.4% 상승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고, 전년 대비로는 1.2% 상승해 예상을 상회했다.

미국 모기지 신청 지수는 지난 주 대비 0.7% 감소했다. 재 신청 지수 또한 0.3% 감소했는데 모기지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2%대 상승

국제유가는 코로나 재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 넘게 상승했다.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장 초반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요인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한다. 더불어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보도와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지속 발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한편, 천연가스는 멕시코만 생산량 증가와 겨울철이 따뜻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수요 감소 영향으로 7% 넘게 급락한 점도 특징이다.

달러화는 전일 급등에 따른 매물 출회되며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다만,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 및 코로나 재 확산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약세폭은 제한되었다. 한편,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0.4% 강세를 보였으나, 여타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 등 차별화가 진행되었다. 엔화와 스위스 프랑 등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보였다. 한편, 독일의 주요 경제 기관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성장 기대를 하향 조정하고, 영국의 봉쇄 정책 확대 등 유럽발 소식과 미국의 코로나 재 확산에 따른 우려로 금리는 소폭 하락했다. 더불어 중국 재무부의 3,5,10,30 년물 입찰에서 수요가 증가했다는 소식도 미국 금리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경기 불확실성과 코로나 재 확산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0.7%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등으로 상승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80% 하락했으나 철근은 0.06%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41.04	+2.09	+2.73	Dollar Index	93.388	-0.15	-0.26
브렌트유	43.32	+2.05	+3.17	EUR/USD	1.1748	+0.02	-0.13
금	1,907.30	+0.67	+0.87	USD/JPY	105.15	-0.31	-0.78
은	24.395	+1.10	+2.09	GBP/USD	1.3017	+0.62	+0.76
알루미늄	1,852.00	-0.32	+3.84	USD/CHF	0.9132	-0.20	-0.46
전기동	6,716.00	+0.36	+0.55	AUD/USD	0.7162	+0.01	+0.32
아연	2,417.00	0.00	+2.55	USD/CAD	1.3148	+0.07	-0.81
옥수수	396.50	+1.34	+1.99	USD/BRL	5.6018	+0.56	+0.14
밀	596.75	+0.46	-1.77	USD/CNH	6.7128	-0.38	-0.32
대두	1,057.25	+0.98	+0.55	USD/KRW	1146.90	-0.02	-1.21
커피	109.60	-0.45	0.00	USD/KRW NDF1M	1147.40	-0.13	-0.8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722	-0.49	-6.45	스페인	0.133	-0.90	-10.80
한국	1.512	-0.80	-2.30	포르투갈	0.128	-1.60	-10.20
일본	0.032	+0.20	-0.90	그리스	0.764	-1.50	-16.70
독일	-0.581	-2.50	-8.80	이탈리아	0.655	-0.20	-12.9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